

## ‘이후’의 이후를 상상하기 관객 설문조사 응답 모음

문항: 공연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상에 별 영향이 없다, 어떤 영향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2	일상을 견디는 작지만 귀한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조금은 거리를 두며 객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채워주고, 일상 속 예술 경험, 문화적 자극을 얻을 수 있는 리추얼이 되어주어서, 가시적이거나 직접적인 인풋은 아니어도 내 삶, 내 일에 풍요로운 거름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본다는 건 내게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행복한 투자방식.
3	예술에 머물러 있다는 심적 안정감
4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한다.
5	없으면 허전하고 이미 일상의 일부이다.
6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	내일, 다음 주,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목표가 생기게 해줍니다.
8	딱딱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고, 생각할 거리를 준다, 팬심이 생긴다.
9	평일 저녁 8시부터의 잠수?
10	일상이요?ㅋㅋㅋ 심심하면 인터파크 들어가서 신작 보기 이런 거 쓰면 되나요ㅎ 그것도 그런데 항상 연극 생각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좋아하는 연극 대사 외우고... 좋아하는 장면 머리속으로 그려보고 벽차오르고... 마음에 걸리는 장면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고ㅎ 좋아하는 배우들 선물 고르고ㅎ 인생아
11	예상치 못한 '시'적 세상을 만날 때가 있다. 바깥 세상을 이해하는데 무대는 재밌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공간이다. 꽤 많이 배우고 성찰한다.
12	나들이
13	실체와 물성을 대면하며 나의 사회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14	사고의 풍요
15	하루의 활력소이다. 연극 보다가 직업도 바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6	글쎄요 공연하는 사람이라
17	몰랐던 분야 대한 지식의 확장
18	한번씩 기분전환하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19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어서 좋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좋다. 하지만 완성도가 높지 않은 작품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한다.
20	취미활동이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퇴근이 늦어지면 예매한 공연시간에 늦을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작품쯤은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장에 보고 싶은 공연이나 예매해놓은 표가 없으면 뭔가 무조건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하다.
21	숨 쉬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22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23	인생에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24	반복되는 일상에 힐링을 준다

25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다르게 바라볼 틈과 여유를 줍니다.
26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삶을 감각하고 사유하게 된다
27	좋아하는 배우들과 훌륭한 연극을 보고 곱씹는 게 그 달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다음 달에 볼 연극을 위해 열심히 돈도 벌게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28	바쁜 일상 중에 생각하게 한다.
29	잠깐이지만 내가 지냈던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30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거나 연기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기
31	때로는 삶을 정착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32	사유의 기회제공
33	원초적인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쾌감 / 좋은, 혹은 흥미로운 공연을 보고 나면 그날은 보통의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하루가 된다. /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주변에 있어 왔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세상을 마주할 수 있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나와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다
34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가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무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5	가장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곳.
36	좋은 공연을 보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37	여유
38	내 일상에서 활동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공연을 보면 환기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39	공연이 좋으면 삶에 활력이 돌고 리프레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정신 차려질 때도 있고, 공연이 나빴을 경우에도 이리 저리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보면서 보는 눈에 보탬이 되었다 라며 정신승리도 하고 공연이 아쉬웠으니 맛있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
40	공연을 보고 나면 내 생활에 바빠 외면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 힘을 얻는다.
41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더 다양한 호흡이나 움직임 등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42	생활의 활력소
43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정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죠
44	삶의 즐거움
45	공연을 본 후 기분전환이 돼요
46	생각을 유연하게 해준다/스트레스 해소/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장/감수성 충전
47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 그것에서 용기를 얻는다.
48	인간 관계가 거의 없는 고독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줌
49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조금 더 오래 살아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50	나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느낍니다.
51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몸과 영혼이 멈추는 기분이 드는데 공연예술을 관람하면 일상에서는 느끼기 힘든 자극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중독적이다. 그리고 같은 공연을 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과 친분을 나누는 일도 즐겁다. 관극은 사교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건 근본적인 건데. 공연을 보면 살아있는 인간을 '무례하지않게 마음껏 보고 싶은 욕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 근데 너무 자주 보면 허리가 아프다... 공연을 보는 일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52	재미
53	관극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극장 근처에서 약속을 잡아요, 공연 얘기 나오면 말이 많아져요, 어떤 사회적 주제를 마주했을 때 그와 관련된 공연을 봤던 경험을 떠올리게 돼요

54	소소한 일탈? 일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창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고 싶어요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무거운 주제의 공연 말고 그렇다고 상업극도 말고..π
55	한여름 밤의 꿈
56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바꿔 준 것 같다. 내가 공연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공연 하나로 내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봄. 지금의 내가 100퍼센트 옳고 바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옳음을 지향하게 해준 것이 공연이라고 생각함. 나라는 본질, 정체성을 탐색하게 해줬음.
57	평소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58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의 카타르시스 / 우울할 때 평평을기위한 것 / 잠시나마 다른 곳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59	하나의 티켓은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공연을 볼 수록 알고 있는 세상이 점점 늘어나는걸 느낀다
60	기분전환
61	일상을 지탱하게 해 준다
62	공연으로 상상하고 공연으로 꿈꿉니다 다른 세계와의 만남
63	공연 시간에 맞춰 다른 일정을 조율한다.
64	생각을 하게해준다
65	그날까지 살아지는 이유. 일상의 자극
66	도피처이자 생각의 바다
67	공연일을 하는 사람인데 공연일을 어쨌든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많이 지쳐있고 질려있고 또 상처도 받고 무척 괴로워도 이 이래서 내가 공연일을 하는구나 하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68	처음에 공연은 내 삶에 천천히 스며들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하나의 인생 목표도 만들어줬다. 공연을 보면 내 삶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69	내 사고를 넓혀주고 가장 안전하게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70	시야를 넓혀주고 내 경험을 확장시켜준다.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어지는 세계관의 성장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하루의 색채가 더 다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71	일정을 짤 때 영향을 줌...
72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73	각자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이라는 장소에서의 체험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74	내향적인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줌.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해줌. 관극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함.
75	제가 진짜 밖에 안 나가는데 극 불라고 나갑니다. 나간 김에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먹고 사는 것 이외의 생각도 오랜만에 했습니다. 쓰다보니까,,,아닙니다.
76	동기부여를 해준다
77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준다
78	통장 잔고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 관극이 많은 기간엔 쉽게 피곤해진다.
79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80	힘들기만 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활력 그 자체입니다.

81	지인이 많아서 일정처럼 보러 가지만 좋은 공연을 만난 날은 일상이 특별해지고 새로운 자극과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매너리즘에 빠진 내 생각과 일상을 흔들어준다.
82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의 생각을 이끌어내줍니다.
83	그 기억으로 살아가요
84	일단 이동하게 만들고(가는 길에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거리 풍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가벼운 소재는 아니다 보니 공연을 많이 접할수록 생각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85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데 공연이 많은 영향을 끼침
86	영감과 자극
87	스케줄 조정이 공연 위주로 돌아감!
88	평소 잘 생각하지 않던 것들을 접하고 느끼게 해준다.
89	일상의 순간들이 빛나게 해줍니다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을 살아갈 이유</li> <li>- 공연을 봐야 하니 더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게 됨</li> <li>- 공연과 관련된 이슈나 주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인식하게 됨</li> <li>-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짐</li> </ul>
91	쉽
92	살아가는 힘을 준다
93	우울하다가도 잡아놓은 다음 표와 다음 관극을 기다리며 버틴다.
94	좋은 공연은 기억에 남고 여운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우스피스의 경우 창작 윤리와 매체에서 다루는 작품의 소재, 실화를 다룰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충격을 받을 때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95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상에서 작은 도망을 치게 해줍니다. 또한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게 되었어요. 공연을 보지 않을 땐, 저녁에도 당연히 일했는데 요즘은 공연과 저녁이 있는 삶을 보냅니다.
96	힘든 삶을 견디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어도 극장에 들어서서 공연을 딱 보는 순간 다른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내가 그 다른 인생에 들어온 것 같아서 내 삶과 분리되는 순간이 좋아요. 관극 후에는 관극하고 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날을 살아갑니다.
97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어주는 점
98	감정의 환기
99	연극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100	평소 관심 있는 주제의 공연을 보러 가는 편인데, 글이나 영상으로 먼저 접했던 주제를 새로운 감각을 활용해서 인식하는 행위가 일상의 권태를 깨워준다는 느낌
101	안전한 거리에서 나와 닳은 삶을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극을 보기 이전의 나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02	공연을 본 날은 내가 꽤 잘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03	매일을 살아가는 원동력 (보기 전 - 기대감 / 보고 난 후 - 즐거움) , 질이 낮거나 취향과 많이 떨어진 작품을 본 경우에는 불쾌감, 분노 등으로 일상에 악영향을 주기도 함
104	삶의 소소한 활력. 종종 좋은 극을 만나면 위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105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106	피로회복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로지 다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107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

108	살아갈 이유까진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
109	힐링, 동기부여,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게 해줌, 배움, 깨달음
110	공연은 잠깐동안 나를 성스러운 방식으로 살게 한다.
111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을 아낀다.
112	질문을 생성하는 장
113	답답한 기분이 들때 나들이가 되고, 생각이 더 유연해지게 만들어줍니다
114	새로운 공부가 됩니다
115	힘든 일상에 낙을 선사한다.
116	잘 안 하던 생각도 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도 좋아짐. 반대로 별로인 공연을 보면 속이 툭툭 막힘.
117	삶의 힐링
118	영감
119	깊은 인상을 주는 공연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짐, 간접경험 등
120	삶의 원동력, 내 삶에서 조금씩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 부여
121	내가 하는 일에 자극을 준다. 취향 저격인 공연을 만나면 하루가 즐겁다.
122	창작 활동에 동기부여가 된다.
123	연극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데, 공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말로는 (프로시니엄 극장에 한해서) 어두운 객석에 앉아 무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평소 주의집중하기 어려운 성향인데 공연이 시작되면 온 신경이 무대로, 퍼포머로, 같이 앉아 있는 관객들로 [함께] 무언가가 느껴지는 게 좋았다. 공연을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124	나름 큰돈을 들여 투자하고 기대하면서 일상을 버티는 힘
125	연극은 삶에 숨통을 트여줍니다
126	일상에서 갇힌 에너지를 재충전해줍니다
127	해당 공연의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및 간접 경험이 내 삶의 경험치를 높여준다.
128	생각의 전환, 공감의 발견, 위로와 용기, 환기!
129	제가 이걸로 먹고, 또 살 수 있게 해요.
130	즐거움! 힐링! 보는 시간 만큼은 행복해집니다.
131	공연은 일종의 공기같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느낌
132	나의 일상을 간혹 흔든다
133	일상의 활력을 주는 역할입니다. 힘든 하루에도 끝나면 관극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고 버틸 힘이 생기고 생각이 많은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잠시 환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래주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무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지만 최근 제작사들의 태도와 티켓팅으로 인해 사실 많이 지쳐버린 상황이에요πππ
134	내일을 살아갈 힘...
135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그 어떤 사소한 부분, 연출, 대사들간에 작은 부분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할만한 것이 있다면 그 공연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제 인생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6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137	현실을 잊을 수 있게 래주고 또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138	공연을 보는 순간만은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139	객석에서 연극이 시작되기 전 10분간의 기다림. 그 차분한 시간의 소중함.

140	만족스러운 공연을 보고 나오면 행복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껴요.
141	비현실의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일이 현실의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한다.
142	공연이 갖는 동시성이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동시성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창작자의 예술을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목격한다는 부분을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143	재미죠. 평범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주는... 그냥 웃음으로써의 재미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그걸 느꼈을 때의 재미. 작품과 소통하는 재미. 이런 게 지친 삶에 활력을 줍니다.
144	관람 후 후기, 음악, 정보 등 복기하면서 활력을 얻음
145	내 인생에 있던 한 부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혹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감각을 어렵풋 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 좋다.
146	삶의 해상도를 높여준다. 창작의욕 고취
147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좀 다르다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들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계속 분석하려 하고, 일상에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서 좀 힘들다 재미있게 즐기는 공연들은 기분전환 숨 쉴 구멍 정도가 된다.
148	저녁이 있는 삶 - 퇴근 후에는 항상 극장으로 갑니다.